

산학연구로 만든 명품 돈육, 수도권에서 큰 호응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일산 킨텍스에서 시식회 개최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하 사업단)이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자체 개발한 명품 돈육 시식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19 K-웰니스 살날 착한 선물진'의 일환으로 선보인 사업단의 돈육은 원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 '두지포크'다.

두지포크는 사업단의 농·생명공학 연구결과로 탄생한 지역 축산 브랜드며, '프리바이오틱스'(유산균 등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를 먹고 자란 친환경 명품돈육이다.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두지포크와 일반 돈육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지포크가 일반 돈육 대비 6% 부드러우며 오메가3, 비타민C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량 함유된 것이 증명됐다.

두지포크가 수도권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에는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상품전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전국 100여 개의 농·축·특산물 중에서도 웰니스(Wellness)에 걸맞은 제품만 선보일 수 있는 행사에서 전국 대표 특산품들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식회는 전북대와 전북도가 함께 만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하 사업단)이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자체 개발한 명품 돈육 시식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들어낸 돈육 브랜드의 가치를 한 걸음 더 확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학교 단장은 "산학협력의 연구성과인 두지포크가 한국웰니스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K-웰니스 살날 착한 선물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에 연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

한편, 두지포크는 공식 홈페이지(<http://doozypark.com/>)와 전주 객리단길에 위치한 수제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 '몬리헨즈'에서 판매중이며, 수의 일부를 지역 농축산브랜드 육성, 청년 취·창업 지원, 전북대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여성새일센터, 우수기관 표창받아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관표창은 전국 158개 새일센터 중 2018년 사업평가 결과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사업, 센터운영 등 전반적 부문에서 매우 양호한 성적을 거두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남원새일센터의 박양영 직업상담사도 개인부문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 기쁨을 함께 했다.

남원새일센터는 가사와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훈련, 인턴사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명의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발굴해 1,076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취업연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취업자가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전년도에 비해 성과 등 급이 2단계나 상승하는 성적을 거둔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여성새일센터, 신한희망새일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 이하 김제새일센터)는 지난 24일 김제새일센터 회의실에서 '신한희망새일이야기'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에서 후원한 공모전에서 김제새일센터를 통해 역경을 이겨낸 순광씨가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신한희망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신미란 센터장이 전수했다.

공모전에 응모한 순광씨의 수기는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 후 낯선 한국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사망, 시어머니의 심장병 수술, 그리고 남편의 손가락 절단사고로 인한 수술과 실직 등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김제새일센터에서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상자 순광씨는 "나는 외국인이고 여성이다. 과거에는 이것을 감추고 싶었지만, 이제 외국인 여성근로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한국을 내 모국보다 더 사랑할 것이고 한국인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새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준 김제새일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광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통안전교육

김제시 광활면(면장 송명호)은 지난 25일 광활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발대식은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알리는 한편,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의 협조를 얻어 노인층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덕분에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도 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고마울 따름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송명호 광활면장은 "안전불감증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노인층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교통안전교육이 마련되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성수면, 마을순회 좌담회 열어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해석)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성수면은 지난 22일 마을순회 좌담회를 열고 군 역점사업인 쓰레기 3NO 운동 생활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효도수당지급, 노인 이·미용비 지원,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결혼녀녀 결혼장려금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성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 스포츠공감센터, 경관개선 등 사업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수면은 30일까지 진행되는 좌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군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석 면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찾아뵙고 얘기를 나눠보니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 옥천장학회에 장학금 전달 잇따라

금융건설 신태수 대표 · 자연다울수록 최성철 대표 등

기해년 새해를 맞아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장학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순창을 소재 건설업체인 (유)금융건설산업 신태수 대표가 순창군의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인재육성 어려운 학생 급식비로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 대표는 "순창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순창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 자연다울수록 최성철 대표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자연다울수록은 화해재배를 바탕으로 야생화, 약초, 산책로를 통해 체험농장을 만드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순창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옥천정보통신 정다운 대표가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4건에 1,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 후 새해에도 이어지는 장학금 러쉬에 지역사회가 더욱 훈훈해지고 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90여명의 순창군 지역 학생에게 4억 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창=이원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올해 전주시민대학 강사 공개모집

시, 내달 8일까지 독서·자녀교육·인문교양 등 11명

전주시는 시민의 독서문화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민대학을 이끌 유능하고 의욕 있는 11명의 강사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민대학은 시민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미래시민역량 강화로 개인 의 삶과 공동체 소통 문화 향상을 위해 전주시 13개 도서관(공공도서관 11개, 공립작은도서관2개)에서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했다.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공개 모집되는 분야는 △독서관련 7개 강좌 △자녀교육 2개강좌 △인문교양으로 2개강좌로 총 3부문, 11개 강좌로 구성된다.

독서관련 부문은 △독서토론 △그림책 △하부르타 △북플레이션 △글 쓰기 또는 출판·책만들기 △인형극 및 동화구연 △독서논술이며, 자녀교육 부문은 △심리 △학습코칭이고, 인문교양 부문은 △시니어 대상(배 아티시터, 전주이야기, 건강, 영화) △핸드메이드메이킹 또는 가정 텃밭·정원만들기 등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 및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자격을 갖추어 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강사를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지원희망지는 2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전주시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강사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시민의 독서 관련 평생학습에 기여할 열정과 지식을 갖춘 시민 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줄 강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도서관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사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산도서관 책임유도팀(063-230-1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전북경찰청, 임시정부 경찰 100주년 역사교육

전북지방경찰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찰실무수습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경찰역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실습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간 전북지방경찰청과 완산서, 덕진서에서 예비법조인들에게 경찰 직무절차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제공하기 교육으로 범죄예방·범죄수사 등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다.

경찰역사교육은 임시정부 초대경무국장으로서 경찰의 기틀을 확립한 김구 선생과 동포사회의 치안을 지키고, 일제 밀정의 독립운동 방해공작을 차단하는 임시정부 경찰의 활약상 등을 교육했다. /김석훈 기자



남원경찰 청문실, 음주운전 예방 간담회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24일 청문감사관 주제로 4층 민인홀에서 입사 5년 미만 신입직원 등 20여명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간담회 및 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가운데 정기간사철과 실 연휴 기간 중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위해 의무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폐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와 협조해 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과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금연교육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 장기투병 동료경찰 위문

박정원 장수경찰서장은 지난 25일 설명절을 맞아 장기투병중인 동료경찰 2명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위문금은 장수경찰 전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경찰, 설 명절 강력사건 발생 대비 실제훈련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24일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강력팀, 여경계 합동으로 112신고 출동 시 각종 흉기 등을 소지한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흉기 등 위험물 휴대 신고 출동 시, 신고접수와 동시에 방탄·방검복을 신속하게 사전 착용해 출동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였다. 이서영 서장은 "앞으로도 중요·강력사건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사전 실제훈련(FTX)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해 출동시간 단축 등 112총력대응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일 기자